

이 보고서는 가로 화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가로로 돌려서 더 편하게 보세요!

세이브더칠드런

2025년 해외사업 결과보고

COVER STORY

지원받은 염소가 낳은 새끼를 돌보는 탄자니아 아동



CONTENTS

2025년 해외사업 소개 04

사업 ① 탄자니아 영양 및 생계지원 사업 07

사업 ② 케냐 나이로비 모자보건사업 18

사업 방법론 지역사회 중심 보건 케어 27

2026년 해외사업 계획 33

2025년 해외사업 소개

2025년 해외사업 영역별 후원금 지출

합계 37,506,842,479원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2025년 결산 기준,
전체 후원금의 80%를 아동을 위한 사업비로,
나머지 20%를 모금 및 일반관리비로 사용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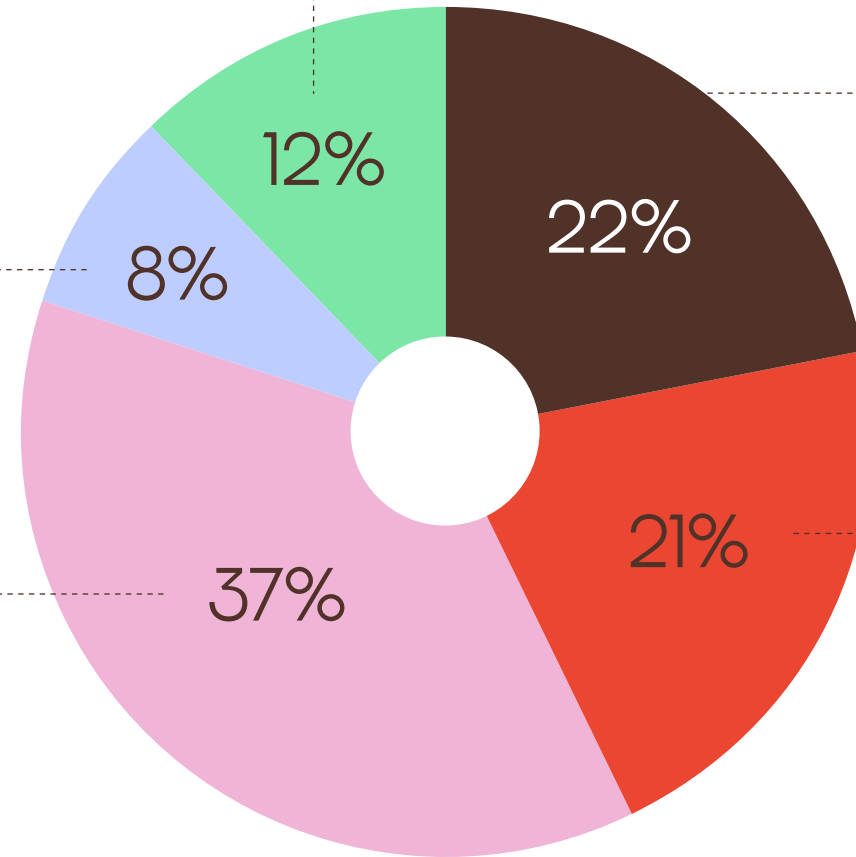
세이브더칠드런은 전 세계 모든 아동이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며,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적지원, 기후위기대응, 교육, 보건, 생계지원,
아동보호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에서는 아동과 산모의 생명을 지키는
보건영양사업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해외마을후원
4,302,380,924원

기후위기대응
3,118,156,017원

인도적지원
13,766,424,876원



보건영양/생계지원
8,284,339,843원

교육/아동보호
8,035,540,819원

2025년

해외사업 영역 및

사업 내용

구분	세부내용	대상 국가
인도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재해 피해지역 긴급 지원 및 복구 진행· 재난 위기 경감 및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 분쟁지역 취약계층 보호, 사회 통합 및 평화 구축	레바논, 미얀마, 방글라데시,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우간다, 인도네시아, 피지
기후위기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 저감형 식수시설 설치· 효과적인 기상정보 활용을 통한 주민 주도형 기후 변화 적응 지원· 산사태·홍수 취약지의 숲 복원 및 관리로 기후회복력 강화	네팔,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에게 지속적인 학습 기회와 포용적이며 질 높은 기초교육 제공· 청소년 대상 미래 준비 역량, 취업·창업 훈련 등 경제적 자립 능력 향상· 빈곤 가구의 경제적 자립 지원·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학습 환경 조성	네팔, 우간다, 코트디부아르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산부, 신생아, 5세 미만 아동을 위한 모자보건 서비스 제공· 지역 보건 시스템 강화·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방글라데시, 케냐, 필리핀
영양 및 생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염소 배분 및 가축 사육 기술 훈련 실시· 식량 생산 다양화를 통한 영양 및 생계지원	우간다, 탄자니아
아동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안전구역 구축· 아동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보호 체계 강화· 젠더기반 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인도네시아, 볼리비아

2025년 한 해 동안 후원자님께서 함께해 주신 덕분에
전 세계 아이들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탄자니아에서 **염소 지원**을 통해 일궈낸 **건강한 자립**의 변화와
케냐 **산모와 신생아의 예방 가능한 사망**을 막기 위한 **보건 활동 현장**의 소식을 담았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세이프더칠드런만의 실전 지침서,
사업 방법론 '지역사회 중심 보건 케어'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1

탄자니아 영양 및 생계지원 사업



2

케냐 나이로비 모자보건사업



3

사업 방법론: 지역사회 중심 보건 케어

후원자님의 따뜻한 관심이 모여 아이들과 가정, 지역사회에 자립의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희망의 여정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한 마리 염소에서 시작된 건강한 변화,

탄자니아 영양 및 생계지원 사업

세이브더칠드런 마스코트 '고티'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세이브더칠드런에서 탄자니아 영양 및 생계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김유진 대리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자랑스러운 마스코트 '고티'가 활동하는 곳,
바로 탄자니아 영양 및 생계지원 사업 현장입니다.

2023년 7월, 탄자니아 도도마(Dodoma) 지역의
바히(Bahi), 참위노(Chamwino)에서 시작된 이 사업은
아이들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도마는 탄자니아 중앙에 있는 수도로, 반건조 기후 특성상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토양의 모래 함량이 높고
일부 지역은 염분 농도 또한 높아 재배 가능한 농작물 품종이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지역주민의 80% 이상이 가축 사육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 ♥ 특히 바히와 참위노 지역은 옥수수과 콩류 재배, 소규모 가축 사육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으나, 기후 변화와 장기화된 가뭄의 영향으로 농작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가축 폐사율 증가와 반복되는 농작물 손실로 인해 식량 부족을 겪는 주민의 수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업이 시작된 지 2년 만에,
탄자니아 가정의 식탁에는 영양가 있는 우유와 신선한 채소가 오르고 있습니다.
굶주림을 겪던 가족들은 균형 잡힌 식사를 하게 되었고,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해 주신 후원자님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패스잇온(Pass-it-on)'** 효과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지원받은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이를 다른 이웃 가정에
선물하며 나눔의 선순환을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한 가정에서 시작된 변화는
지역사회로 자연스럽게 확산되며, 사업 효과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166개 마을, 1,034가구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을들은 상호 지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이웃 간 협력과 실천 사례의 공유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주도형 네트워크는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26년에도 탄자니아에서 더욱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이곳에서 일어난 성장의 기록을 전해드립니다.



수혜자 선별 및 염소 지원

취약계층 대상의 염소 지원과
패스잇온 모델 도입을 통해
아동의 영양 섭취를 안정화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을
확립했습니다.

① 수혜자 선별

· 현장 농업지도사와 협력하여 취약계층 243가구를 우선 선별했습니다. 이 가구들은 패스잇온(Pass-it-on) 모델의 시범 가구로 참여하며, 새끼 염소를 이웃 가정에 나누고 사육 방법을 공유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확산시켰습니다.

▼ 염소를 지원받는 가정들



② 축사 보수 및 신축

· 염소의 건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사육 환경 조성을 지원했습니다. 현장 농업지도사와 함께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재를 활용하여 축사를 보수 및 신축했으며, 그 결과 염소 우리 283개를 마련했습니다.

▼ 염소 축사 개보수를 진행하는 현지 직원들



3 암컷 염소 지원

- 166개 마을(바히 59개, 참위노 107개)에 암컷 염소 281마리를 지원했습니다. 패스잇온 방식을 통해 새끼 염소 229마리는 새로운 가정에 전달되었습니다.
- 염소 우유 생산 유지를 위한 '염소 우유 섭취 캠페인'에는 새끼 염소가 태어난 506가구가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착유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6개월 동안 총 82,400L의 우유를 생산했습니다. 이는 매일 1,810명의 아동이 한 컵(250mL)씩 마실 수 있는 양입니다.
- 또한 예방접종과 구충제 지원을 확대하고, 필수 미네랄과 비타민 보충제가 포함된 균형 잡힌 사료를 제공하여 염소의 생존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4 수컷 염소 지원

- 우유 생산량의 안정화와 품종 개선을 위해 수컷 염소 19마리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근친교배로 인한 생산성 저하, 유전 질환, 면역력 약화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 태어난 수컷 염소를 마을 간 교환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염소의 건강을 유지하고 우유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 텃밭을 조성하는 지역주민들

5 생계 기반 강화

- 정부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역주민 4,742명에게 기후 스마트 농업(Climate-Smart Agriculture) 기술을 교육하고, 텃밭 572개를 조성했습니다. 이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작물 생산량을 높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농업 방식입니다.
- 정부와 지역사회 관계자들은 염소 사육과 작물 재배 활동 현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현장 기술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455명의 축산 관리 및 농업 숙련도가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염소 분뇨를 유기농 비료로 활용하면서 작물 생산성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영양 개선 활동

보건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가정 맞춤형 영양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생활 습관 변화를 이끌어
아동 영양 상태를 개선했습니다.

① 영양 개선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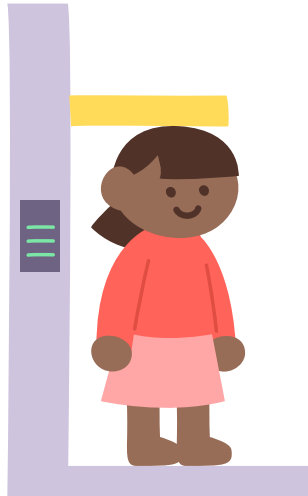
- 지역정부 보건관리팀과 협력하여 보건시설 50곳에서 현장 실무훈련(OJT) 기반의 영양 코칭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영양 서비스 관련 데이터 정확성이 향상되었으며, 보건인력이 영양평가, 영양상담, 산전관리 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세 미만 및 5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세 미만 아동 1,739명과 5세 미만 아동 3,893명을 식별하여 맞춤형 영양 교육과 아동보호, 조기아동발달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 가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자 그룹 469개를 구성했습니다. 각 그룹(약 10명 내외)은 임신부 612명, 수유부 1,430명, 5세 미만 아동 보호자 2,575명을 대상으로 영양 실천, 아동 건강관리,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실습 중심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② 교육 자료 제작 및 배포

- 사회·행동 변화(Social and Behavior Change) 커뮤니케이션 자료 677부를 제작하여 보호자 그룹 활동과 가정 방문 교육에 활용했습니다. 문해력이 낮은 보호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위주로 구성했으며, 영유아 수유 및 양육, 위생 관리, 아동보호 등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주제를 담았습니다.
- 보호자 그룹 관리자 23명을 대상으로 14일간의 통합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이론, 실습, 역할극 등 참여형 학습으로 진행되었으며, 교육 이후 참가자들의 지식 및 기술 평균 점수는 71점에서 87점으로 향상되었습니다.
- 교육을 수료한 관리자들은 보호자 그룹 자원봉사자를 멘토링했으며, 자원봉사자들은 인근 가정에 핵심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주민 7,132명이 영양, 위생, 아동보호 관련 실질적인 교육과 행동 실천 지도를 받았습니다.

3 가정 중심 영양 개선

- 보호자 대상 교육 세션을 통해 청소년 영양 요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정 내 식단 개선을 지원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청소년 자녀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 가뭄으로 인한 식량 위기에 대비하여 가뭄에 강한 내건성 작물 재배법과 안전한 식품 보관법을 교육했습니다. 일부 가정에서는 건조채소를 저장하여 이전에 반복되던 식량 공백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4 마을 보건·영양의 날 활동

- 116개 마을에서 지역주민 3,837명을 대상으로 마을 보건·영양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보건인력이 직접 참여하여 영양실조 아동 선별 및 치료 연계, 아동 성장 모니터링, 산전관리, 비타민A 보충, 구충제 투여 등 통합형 보건·영양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 현지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 시연도 함께 진행하여,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식단 구성과 조리법을 교육했습니다.
- 마을 보건·영양 행사를 진행한 116개 마을 중 우수 마을로 선정된 56개에는 요리 시연 도구를 추가 지원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늘리고, 가정에서 더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 영양 개선 교육에 참여하는 주민들



▲ 마을 보건·영양의 날에 성장 모니터링을 받는 아이들

가정 역량 강화

남성 챔피언 선발과 긍정적인 양육 교육을 통해 아버지의 돌봄 참여와 성평등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포용적인 가정 문화를 조성했습니다.

1 남성 챔피언 활동

· 바히와 참위노 지역에서 총 4회의 지역사회 대화 세션을 개최하여 남성 챔피언 231명을 선발했습니다. 이들은 가정 내 성평등 실천과 아버지의 돌봄 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정 문화를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 남성 챔피언 활동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



· 이 중 202명은 보호자 그룹 활동에 참여하여 남성이 가족 복지와 아동 발달에 주도적으로 기여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남성 챔피언 대상으로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교육을 실시한 결과, 남성 보호자의 90%가 체벌 없는 양육을 실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염소 우유를 짜는 아빠와 신선한 우유를 마시는 아동



영양 정책 기반 강화 및 인식 제고

지방정부의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여
아동 영양 예산을 확보하고,
영양실조 치료 연계율 100%를 달성하며
공공 보건 안전망을 공고히 했습니다.

1 아동 영양 예산 확대

· 지방정부 예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멘토링을 실시하여 예산 수립 과정에서 아동 영양을 우선순위로 반영하고 재정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각 지방 의회는 아동 1인당 영양 예산을 2022년 대비 2024년에 유의미하게 증액했습니다. 이는 아동이 연 1~2회 비타민A 보충제와 구충제를 복용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입니다.

바히	2022년 TZS 1,085 → 2024년 TZS 1,557 (탄자니아 실링, 한화 약 618원 → 약 887원)
참위노	2022년 TZS 1,177 → 2024년 TZS 1,476 (탄자니아 실링, 한화 약 671원 → 약 841원)

·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아동 1인당 영양 예산이 TZS 1,000 미만으로 유지하거나 동결되는 가운데, 이러한 예산 증가는 바히와 참위노 지방정부가 아동 영양을 핵심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재정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입니다.

2 영양 및 식량안보 성과

· 급성 영양실조 치료를 위해 보건시설로 연계된 아동의 비율은 11%에서 100%로 증가했습니다. 이제 치료가 시급한 모든 아동이 누락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식량을 구하기 어려웠던 도도마 지역 가구 중, 62%의 가구가 이제는 끼니 걱정 없이 안정적인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3 현지 미디어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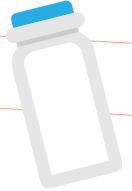
· 이 사업은 탄자니아의 75개 언론 매체에 소개되었습니다. 염소 우유의 아동 영양 개선 효과, 지역사회 소득 증대, 여성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성과가 TV, 라디오, 온라인 매체를 통해 널리 공유되며 지역사회 전반의 사업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였습니다.

염소가 매일 신선한 우유를 선물해줘요

조셉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탄자니아 바히에 사는 9살 조셉(Joseph)이에요.
세이프더칠드런에서 우리 가족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염소는
이제 우리 집의 가장 큰 기쁨이자 보물이 되었어요.



염소가 우리 가족이 되기 전에는 부모님 일을 도와드려야 해서
학교에 자주 가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일을 나가 수입이 있는 날에만
밥을 먹을 수 있었기에, 하루에 겨우 한 끼로 버티는 날이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염소가 주는 신선한 우유를 매일 마시고 있어요!
우리 염소는 하루에 2리터의 우유를 내어줘요.
부모님은 저와 동생들이 눈에 띄게 튼튼해졌다며 무척 기뻐하세요.

지난 1월에는 염소가 귀여운 새끼를 낳았어요.
우리 가족은 그 새끼 염소를 이웃집에 선물했답니다!
우리처럼 염소 우유를 마시며 건강해질 이웃 친구를 생각하니 정말 뿌듯했어요.

이제 우리 집은 텃밭을 가꾸고 염소를 돌보며 생활이 안정되어 가고 있어요.
이제는 부모님 일을 돕느라 학교를 빠지지 않아도 돼요.

우리 마을 친구들 모두가 염소를 키우며 건강해지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에게 웃음을 선물해 주신 후원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염소 우유를 먹고 쌍둥이 아기가 건강을 되찾았어요

안나와가족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탄자니아 바히에 사는 38살 안나(Anna)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여섯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일거리가 있을 때만 겨우 소득이 생겼기에, 우리 가족의 삶은 늘 불안정했죠.

우리 가족은 하루 한 끼, 옥수수 죽인 우갈리와 채소로 배고픔을 견뎌야 했어요.

제대로 된 집도, 텃밭도 없었던 형편에 큰 아이들의 학비를 감당하지 못해

모두 학교를 그만둬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9개월 쌍둥이는

제가 영양이 부족해 모유를 충분히 먹이지 못했고, 그래서인지 자주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가족에게 한 줄기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이웃에게 염소 한 마리를 선물받게 된 것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지원을 받았던 이웃은 정성껏 염소를 키워 8마리로 늘렸고, 그중 한 마리를 다시 우리 가족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 염소는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지켜주는 소중한 가족이 되어줬어요. 매일 신선한 염소 우유를 마시는 쌍둥이는 눈에 띄게 건강해지고 있고, 큰 아이들에게도 염소 우유를 넣어 영양 가득한 음식을 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저 역시 또 다른 이웃에게 나눌 계획입니다.

염소가 온 뒤, 저는 다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 학교를 마칠 수 있도록,

엄마인 저도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보려 합니다.

먼 나라 한국에서 따뜻한 선물을 보내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아이들도 언젠간 이 따뜻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탄자니아 현지 직원들과는 화면을 통해 자주 현장 소식을 나누며, 더 많은 가정에 영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와 현지 직원들에게 작년 한 해 가장 기억에 남았던 문장이 있습니다.

"From One Goat to Many."

한 마리 염소에서 시작해, 수많은 염소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몇 마리의 염소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마을 전체로 확산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건강한 식탁을 고민하는 부모들은 영양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아이들은 신선한 염소 우유를 마시며 하루하루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텃밭에서 자란 푸른 채소는 가정의 식탁을 채우는 동시에 중요한 소득원이 되었습니다.

후원자님 덕분에 가능했던 이 많은 변화를 함께 기억해 주시고, 탄자니아에서 진행되는 영양 및 생계지원 사업에도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후원자님이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 덕분에, 탄자니아 가정에 ‘빨간 염소’가 전해졌습니다. 염소 한 마리는 단순한 가축을 넘어, 아이들의 영양을 지키고 가족이 다시 일상을 꾸려갈 소중한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후원자님의 응원이 있기에 이 여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 국제사업부문 김유진 대리



탄자니아 영양 및 생계지원 사업비

사업비	다양하고 안전한 영양식품 접근성 향상 및 농작물·가축 소득 확대	110,851,447원	23%
	지역사회 및 보건시설 내 양질의 영양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237,686,396원	49%
	지역사회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지역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	26,565,134원	5%
	성과 관리 및 사업 모니터링	67,790,426원	14%
운영비	기타 운영비	41,466,310원	9%
합계		484,359,713원	100%

캥거루처럼 품어 지키는 작은 생명, 케냐 나이로비 모자보건사업

○ 나이로비

산전관리를 통해

초음파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임산부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케냐 나이로비 모자보건사업을 담당하는 정진실 대리입니다.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Nairobi)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구가 빠르게 유입되면서, 비공식 정착촌에 임시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구 과밀화와 빈곤, 전염병 확산 등 다양한 도시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과 여성을 위한 보건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아,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이 이어져 왔습니다.

의료 시설이 부족한 데다 긴급 후송 체계까지 미흡하여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경우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러한 어려움이 가장 심각한 나이로비 마카다라(Makadara)와 카무쿤지(Kamukunji) 지역에서 산모와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예방 가능한 사망을 줄이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에는 사업의 기틀을 다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산모와 아이들에게 필요한 의료 물품이 제때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현장의 보건인력과 마을보건요원들을 교육하며 아이들을 지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어 2025년에는 이른둥이를 위한 캥거루 마더 케어(Kangaroo Mother Care)
공간을 개보수하고, 의료진이 더욱 정확하게 아이들을 진료할 수 있도록
보건 시스템을 한층 안정화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사회와 보건시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산모와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신생아 모자뜨기 캠페인을 통해
세이브더칠드런을 기억해 주시는 후원자님도 계실 텐데요.
그 따뜻한 마음이 이어지는 이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케냐 아이들의 삶에 찾아온 변화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모자보건 서비스 기반 강화

보건인력과 마을보건요원의 역량 강화와 시설 개보수를 통해 고위험 산모와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 치료로 연계하는 긴급 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① 보건인력 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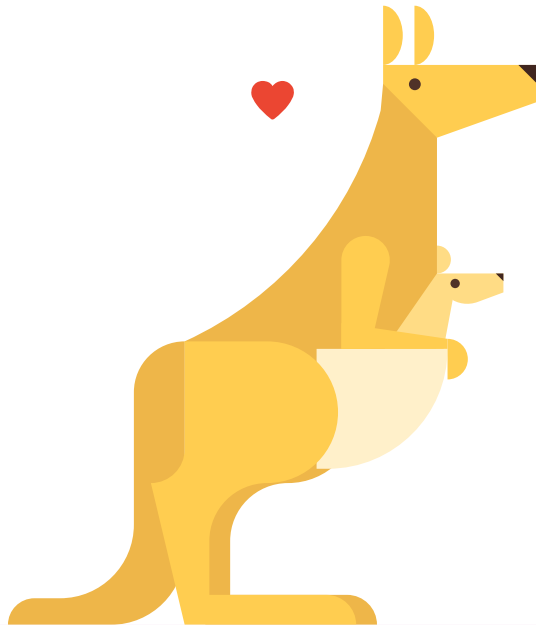
- 아동 통합질병관리 교육을 받은 보건인력은 마카다라와 카무쿤지 지역에서 5세 미만 아동 2,296명(여아 1,255명, 남아 1,041명)을 진단하고 분류했습니다.
- 호흡곤란, 설사, 말라리아, 영양실조 등 주요 질환을 조기에 식별하고, 긴급 치료가 필요한 아동 1,461명을 적절한 의료 서비스로 연계했습니다.
- 보건인력 55명에게 태블릿 PC를 제공하여 월별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 이후에도 멘토링과 현장 지원을 지속하며, 현장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이 안정적으로 활용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② 마을보건요원 역량 강화

- 마을보건요원은 지역사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산모와 아동을 만나 위험 신호를 가장 먼저 발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 전문 교육을 수료한 마을보건요원들은 현장에서 위험 징후가 있는 산모와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총 8,725건의 보건시설 연계를 지원했습니다.
- 지역사회 건강을 책임지는 마을보건요원에게 보건부 공식 의뢰서 600부를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산부는 적시에 산전·산후 관리를 받고, 아동은 필수 예방접종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건 의료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3 보건시설 개선

- 보건시설 4곳의 캥거루 케어 센터를 개보수하고, 이른둥이와 저체중아 돌봄에 필요한 필수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제공된 장비에는 실내 난방기, 산소포화도 측정기, 온도계, 신생아용 CPAP 기계(자가호흡 보조기), 흡입기 등이 포함됩니다.



▲ 가정방문을 통해 임산부를 상담하는 마을보건요원

모자보건 서비스 이용 확대

마마키트 지원과 마을보건요원의 가정 방문을 통해 산전·산후 관리 이용률을 높이고, 캥거루 케어 등 필수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영유아 사망 위험을 낮췄습니다.

① 산전·산후관리 이용 확대

- 총 8회 산전관리를 완료하고 보건시설에서 출산한 임산부 2,000명에게는 마마키트(아기 포대기, 속싸개, 신생아용 모자 포함)를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신 12주 이전부터 산전관리를 시작하고, 의료진이 상주하는 시설에서 안전하게 출산하도록 독려했습니다.
- 임산부 15,673명이 새롭게 산전관리를 시작했으며, 20,501명은 보건시설에서 안전하게 출산했습니다. 출산 이후에는 산모 19,622명이 48시간 이내 산후관리를 받았고, 필요시 마을보건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아기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② 신생아 건강관리

- 마을보건요원에게 아동 통합질병관리 지침서 240부를 배포하여, 말라리아, 폐렴, 설사 등 주요 아동 질환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치료로 연계할 수 있는 표준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보건인력을 대상으로 캥거루 케어와 탯줄 소독 관련 교육과 현장 지원을 제공하여, 신생아들이 태어난 직후부터 필수적인 돌봄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저체중 신생아 779명은 캥거루 케어를 통해 체온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으며, 신생아 18,741명은 탯줄 소독으로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 보건시설에서 진료받는 신생아

모자보건 서비스 관리 체계 강화

주민 참여형 보건 서비스 평가와
국가 지침에 기반한 사망 관리 체계를 강화해,
예방 가능한 모성 사망 건수를 감소시켰습니다.

① 지역사회 참여 촉진

- 지역사회 대화의 날 행사를 총 4회 진행했습니다.
- 커뮤니티 스코어 카드를 활용하여 보건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건 서비스를 직접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 주민 442명(여성 282명, 남성 160명)이 보건인력과 함께 참여하여 서비스 질을 점검하고 문제를 확인하며, 공동의 개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② 모성·주산기 사망 관리 체계 수립

- 국가 차원에서 모성·주산기 사망 사례를 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침이 개정되어 현장에 적용되었습니다. 주산기 사망은 임신 28주 이후부터 출생 후 7일 이내 발생한 신생아 사망을 의미합니다.
- 모성·주산기 사망 및 위험 사례 점검 위원회가 보건시설과 지역사회에 새롭게 구성되거나 재활성화되어, 정기 월례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정된 국가 지침에 따른 보고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한 결과, 예방 가능한 모성 사망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실제로 모성 사망 건수가 13건에서 5건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③ 사업 관리 및 현장 점검

- 2일간의 사업 리뷰 회의를 통해 산전관리, 예방접종 참여율, 모자보건 서비스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마을보건요원 52명을 대상으로 17개 저축모임 운영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요원들이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갖추고, 지역사회 내 보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 보건관리팀은 보건시설을 방문하여 보건인력의 활동을 점검하고 지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신 부족과 예방접종 공간의 부재를 확인했으며, 백신 냉장고를 설치하여 예방접종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 보건시설에서 건강하게 태어난 아기들

케냐 나이로비 모자보건사업

산전관리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아드와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케냐 카무쿤지에 사는 27살 아드와(Adwoa, 가명)입니다.
현재 임신 5개월 차인데, 첫 임신은 저에게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입덧이 심해 거의 먹지 못했고, 극심한 피로로 하루하루가 버겁기만 했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이 모든 게 임신 중 겪는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생각해서
병원을 찾을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산전관리는 많이 아픈 임산부들만
받는 것이라 여겼고, 넉넉지 않은 살림에 남편과 의료비 걱정도 컸습니다.
게다가 우리 마을에는 임신 사실이 걸으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를 숨기는 것이
아기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오랜 믿음이 있어 더욱 망설여졌죠.

이런 제 생각은 지역사회 마을보건요원 존스(Jones)의 방문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존스는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 산전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보건시설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줬어요.

그 덕분에 저는 용기를 내어 보건시설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영양 섭취 방법과 개인위생, 그리고 고된 노동을 피하고
안정을 취하는 법 등 임신 중 꼭 알아야 할 건강 수칙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벌써 두 차례나 산전관리를 받았고, 출산 전까지 꾸준히 병원에 갈 계획입니다.
8회 모두 받으면 마마키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꼭 챙겨 볼 생각이예요!

이제 저는 주변 임산부들에게도 산전관리를 적극 권유하며,
임신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아기에게 건강한 미래를 선물해 준
세이프더칠드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렸을 때 드라마에서 보던 출산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할머니의 도움으로 힘겹게 아이를 낳고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면 아버지가 기쁨에 겨워 아기를 품에 안는 모습 말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풍경은 낯선 모습이 되었습니다. 임신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병원을 찾아 체계적인 검사를 받고, 안전하고 쾌적한 의료 환경에서 출산하는 것이 당연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토록 익숙한 과정이, 케냐 나이로비의 산모들에게는 여전히 간절한 바람입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열악한 보건 인프라, 그리고 오랜 관습으로 인해 비공식 정착촌의 많은 산모는 여전히 위험한 가정 분만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24년부터 모자보건사업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켜나가는 여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산모들은 정기적인 산전관리를 받고, 연약하게 태어난 신생아들은 캥거루 케어를 통해 건강하게 삶의 첫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이어질 이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더 많은 산모와 아기가 건강한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아이들은 건강하게 태어나고, 안전하게 자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연한 시작을 현실로 만드는 가장 큰 힘은 후원자님의 따뜻한 마음과 관심입니다. 케냐 아이들이 이 소중한 생명의 출발을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국제사업부문 정진실 대리



케냐 나이로비 모자보건사업비

사업비	필수 모자보건 서비스 접근성 및 질 향상	201,343,003원	45%
	지역사회 맞춤형 보건 시스템 역량 강화	145,340,671원	32%
	모자보건 정책 및 사회적 책무성 강화	15,451,189원	4%
	성과 관리 및 사업 모니터링	42,031,908원	9%
운영비	기타 운영비	44,297,461원	10%
합계		448,464,232원	100%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특별한 지침서, 사업 방법론(Common Approach)



안녕하세요,
저는 세이브더칠드런에서 해외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박소라 대리입니다.

그간 여러 보고서를 통해 세이브더칠드런의 다양한 사업 방법론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지역사회 중심 보건 케어' 방법론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떠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상세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사업 방법론은 오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완성된, 아동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실전 지침서입니다. 아동이 살아가는 지역사회에 가장 즉각적이고도 오래 지속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전 세계에서 효과가 입증된 사업 사례들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총 5개 분야, 19개 방법론으로 체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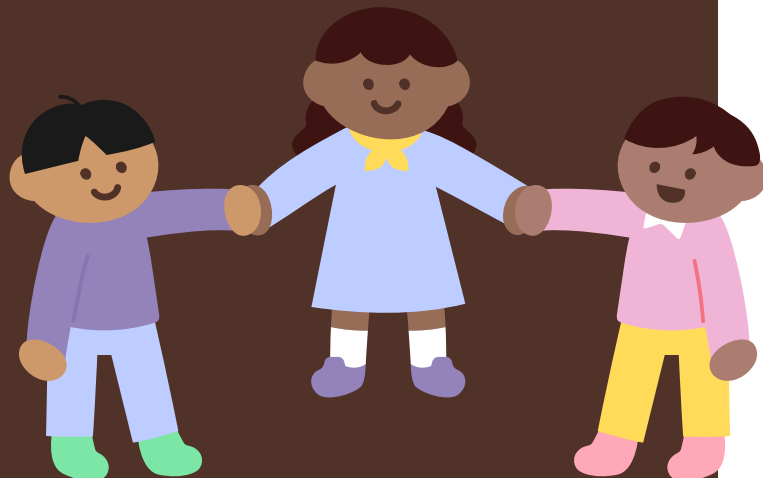
이러한 표준화된 방법론 덕분에, 전 세계 어디서든 아동과 관련된 유사한 문제에 마주했을 때 처음부터 새로운 방법을 찾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신 검증된 사업 방법론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특수성에 맞춰 사업을 세밀하게 조정하고 실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중심 보건 케어' 방법론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아동 질환을 스스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설사, 폐렴, 말라리아, 패혈증 등 주요 아동 질환을 현장에서 빠르게 진단하고 치료하며,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상급 보건시설로 신속히 후송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론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을까요? 앞서 소개된 케냐 나이로비 모자보건사업 현장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의 전문성이 일궈낸 변화의 이야기를 지금 확인해 보세요!

세이브더칠드런

사업방법론 Common Approach



1 보건 및 영양 Survive

- 신생아 살리기 Saving Maternal Newborn Lives
- 영유아 수유 Nourishing the Youngest
- 피임 결정에 대한 권리 Contraception by Choice
- 지역사회 중심 보건 케어 Treating Children Close to Home
- 성 생식 건강과 관리 My Sexual Health and Rights

2 교육 Learn

- 두뇌 발달 촉진시키기 Building Brains
- 학습 준비시키기 Ready to Learn
- 문해력 향상시키기 Literacy Boost
- 수리력 향상시키기 Numeracy Boost
- 아동 친화적이고 역량 있는 교사 양성하기
Enabling Teachers

3 보호 Be Protected

-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Safe Families
- 안전한 학교 만들기 Safe Schools
- 아동보호 체계 만들기 Steps to Protect

4 생계지원 Child Poverty

- 가계 경제 분석 Household Economy Analysis
- 가정 단위 영양 지원 Resourcing Families for Better Nutrition
- 자립을 위한 생활 기술 Life Skills for Success

5 아동권리 거버넌스 Child Rights Governance

- 아동 권리 보고서 만들기 Child Rights Reporting
- 아동을 위한 공공투자 Public Investment in Children
- 아동 중심의 지역사회 책무성 메커니즘 만들기
Child Centered Social Accountability

사업 방법론: 지역사회 중심 보건 케어

'지역사회 중심 보건 케어 Treating Children Close to Home' 방법론

적용 사례: 케냐 나이로비 모자보건사업

세이브더칠드런은 지역주민들 중 일부를 마을보건요원으로 양성하여 설사, 폐렴, 말라리아 및 신생아 질환 사례를 진단 → 치료 → 연계하는 통합 보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발생하는 아동의 예방 가능한 사망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케냐 나이로비 모자보건사업 현장에서는 마을보건요원이 임산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산전검사를 독려하고, 안전한 출산과 신생아 관리에 필요한 필수 보건 정보를 안내합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



마을보건요원

아동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중증 사례는 상급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연계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보건인력을 양성합니다.



지역사회

보호자가 아동의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건 인식 개선과 교육을 지원합니다.



보건시설

마을보건요원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적시에 아동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부

지역과 국가 보건 시스템의 통합 관리를 강화하여, 사업 종료 후에도 네트워크가 자립적으로 유지되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마련합니다.

사업 방법론: 지역사회 중심 보건 케어

'지역사회 중심 보건 케어 Treating Children Close to Home' 방법론

적용 사례: 케냐 나이로비 모자보건사업

세이브더칠드런은 현재 25개국에서 이 방법론을 적용하여 수백만 명의 아동에게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실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2030 보건 목표

- ☑ 신생아와 5세 미만 아동의 예방 가능한 사망 종식
- ☑ 말라리아 유행 종식

실제로 잠비아의 사례에 따르면, 아동 1인당 평균 4달러라는 경제적인 비용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병원 치료 대비 비용을 크게 절감하면서도, 7개국 사례 분석을 통해 비용 대비 효과가 높고 품질 또한 우수함이 입증되었습니다.

핵심 강점



변화 옹호(Advocating For Change)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수십 년간의 연구와 협력을 바탕으로 60개 이상의 보건 지침과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이 방법론이 다양한 환경에서 아동 사망률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각국 정부와 지역사회가 더욱 견고한 보건 체계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통합적 환경 적용(Working in Multiple Contexts)

지리적으로 의료 접근이 어려운 소외 지역은 물론, 분쟁이나 재난으로 보건의료 시스템이 붕괴된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지난 20여 년간 전 세계 곳곳의 현장에서 그 효과를 철저히 검증받았습니다.



비용과 효율성(Cost and Efficiency)

심층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접근법은 잠비아 사례와 같이 저비용으로 고품질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대안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보건 케어(Treating Children Close to Home)’는 세이브더칠드런의 보건·영양 분야를 대표하는 핵심 방법론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여 년간의 깊이 있는 연구와 치열한 현장 실천을 바탕으로 정립된 이 전략적 접근법은, 모든 신생아가 건강하게 태어나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각국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더 나은 해결책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케냐 나이로비 모자보건사업 현장의 변화를 통해 세이브더칠드런의 전문성을 확인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아동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펼쳐 나갈 여정에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랜 기간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을 통해 아동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후원자님의 따뜻한 관심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아동의 삶과 지역사회의 내일을 바꾸는 단단한 밑거름이 되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 국제사업부문 박소라 대리



아이들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업의 현장을 기록합니다.
때로는 치열하고, 때로는 감동적인 이 변화를 전할 수 있는 것은
늘 곁에서 큰 힘이 되어 주시는 후원자님 덕분입니다.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희망찬 소식을 담아 보냅니다.

🗨️ 편집 | 후원서비스부문 김수빈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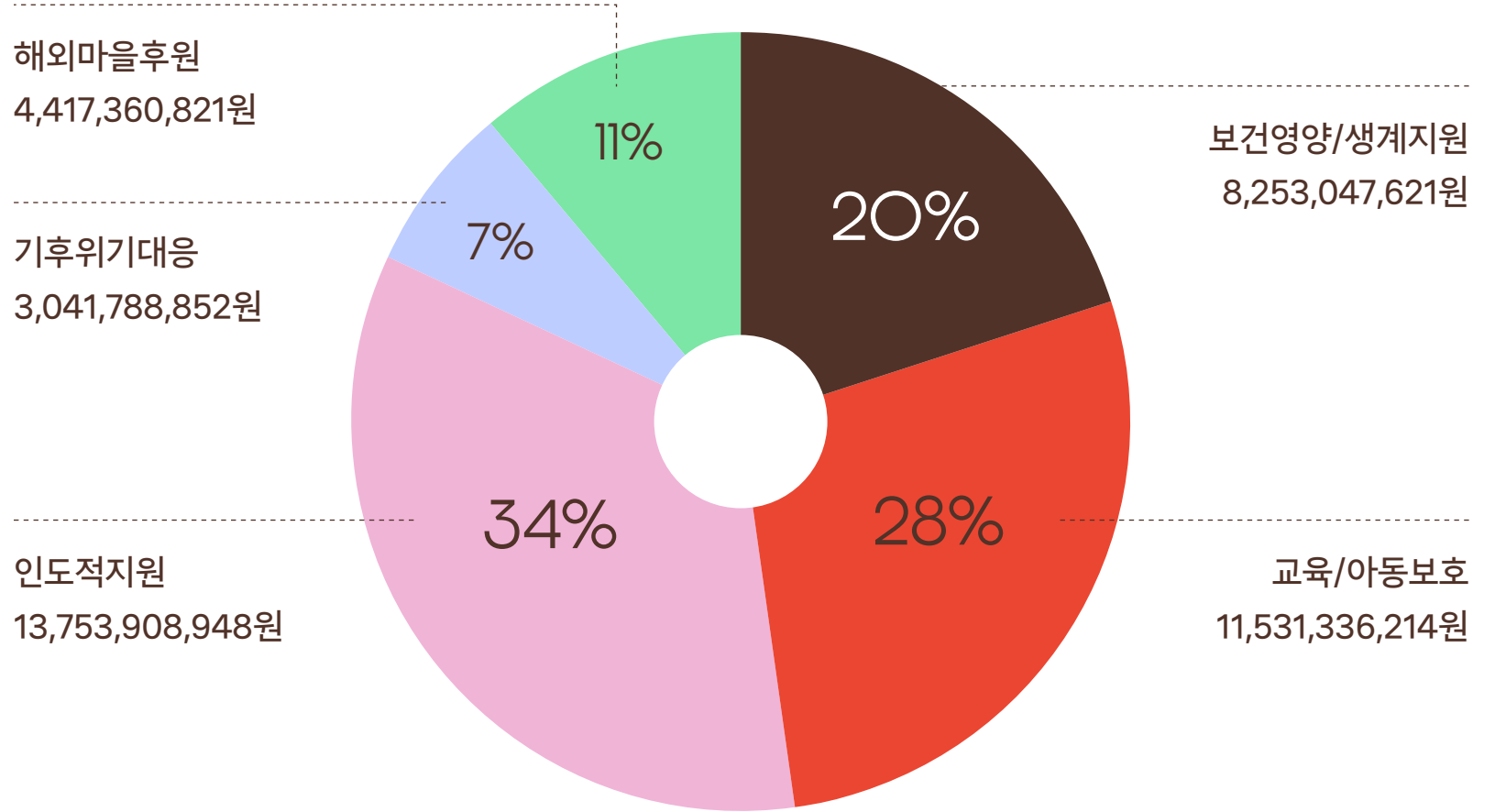
2026년 해외사업 계획

전 세계 아동을 위해 보내주신
소중한 마음을 깊이 새기며,
2026년에도 후원금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인도적지원,
기후위기대응, 교육, 보건, 생계지원 등
모든 영역에서 아동의 생명을 구하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6년 해외사업 영역별 예산 계획

합계 40,997,442,456원



세이브더칠드런은 앞으로도
사업보고서, 사업보고회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후원자님께 더욱 상세한 변화의 이야기를 전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6년에도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전 세계 아동의 삶을 지키는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전 세계 아이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선물해 주시는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투명성 약속

세이브더칠드런은 후원금 사용에 관한 기부금품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된 모든 법률 규정을 준수합니다.

글로벌 4대 회계법인인 EY한영 회계법인에서 외부감사를 받고,
이사회에서 연 1회 이상 내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후원금 사용 내용은 연차보고서,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
마포구청 홈페이지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니
언제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74

대표전화 02-6900-4400 | 홈페이지 www.sc.or.kr